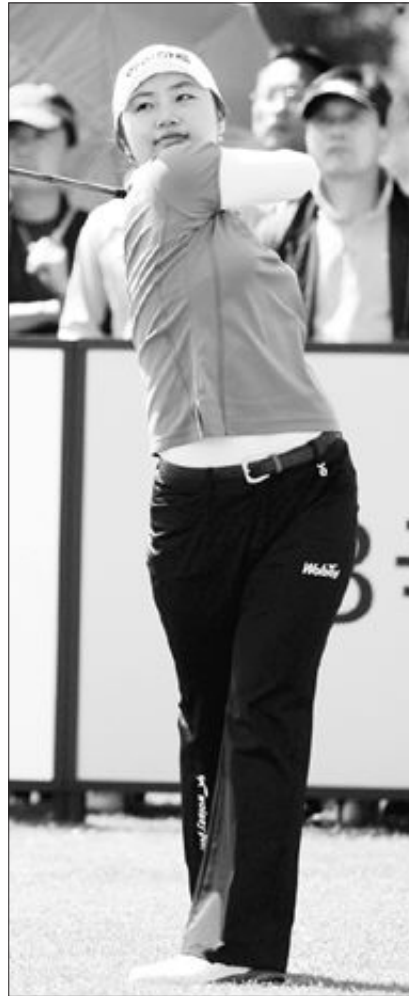




최혜용



유소연



김혜윤

막판 신인왕 경쟁 '후끈'

(KLPGA)

포인트 최혜용(1,451)·유소연(1,364)·김혜윤(1,336)順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결과 따라 윤곽 드러날듯

평생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 KPGA 신인왕 경쟁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더 뜨겁다.

최혜용(18·LG), 유소연(18·하이마트), 김혜윤(19·하이마트) 등 신인왕 후보 3인방은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세인트포레이디스(파72·6천303야드)에서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신인왕 포인트 1위 최혜용(1천451점)은 2위 유소연(1천364점)과 3위 김혜윤(1천336점)에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내일 열리는 세인트포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격돌한다.

인왕 레이스 포인트 150점을 받아 절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만 고만고만한 성적이라면 이어지는 시즌 최종전까지 승부가 미뤄진다.

그래서 150점을 받으면 신인왕을 확정 짓는 최혜용이나 역전을 노리는 유소연과 김혜윤은 저마다 우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냈다.

마침 제주도 골프장은 신인왕에게 '악속의 땅'이다. 올해 제주에서 열린 5차례 대회에서 신인 우승자가 4명이나 배출됐다.

최혜용, 유소연, 김혜윤 모두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제주에서 거뒀다.

그러나 신지애가 미국대회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시즌 4승을 올린 서

희경(22·하이마트)과 3승을 따낸 김하늘(20·코오롱), 홍란(22·먼심웨어), 김보경(22·던롭스릭스), 안선주(21·하이마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한가지 변수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공동 주최하는 대회라는 점이다.

37명이 출전하는 LET 소속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 비해 실력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깥이 강한 코스에서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풍부해 무시할 수 없다.

LET에서 5승을 따낸 글라디스 노세라(프랑스)와 미국 진출에 앞서 LET에서 뛰고 있는 양희영(19·삼성전자)이 북병으로 꼽힌다.

한국배구연맹(SBS코리아)투어 토마토 저축은행오픈 때 대회장을 제공했던 세인트포레이디스장은 총상금 30만달러를 내건 이 대회 타이틀스폰서를 J골프와 공동으로 맡았다.

J골프가 14일~16일 오후 1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연습뉴스

출전 선수 36명 중 '태극 남자' 15명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내일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대체로 자리잡은 '코리안 시스템'이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안방에서 시즌 9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오초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이 대회는 총상금이 1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엄선된 선수 36명만 출전해 컷오프없이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플레이를 펼치는 특급 이벤트이다.

36명 가운데 31명은 상금 순위에 따라 결정됐고 나머지 5명은 스폰서 초청을 받았다.

한국 선수 15명은 모두 상금순위로 출전권을 받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승없이도 신인왕 레이스 2위, 상급랭킹 10위에 올라 있는 최나연(21·SK텔레콤)과 2승을 올린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금순위 7위를 달리고 있는 이선화(23·CJ), 그리고 베테랑 한희원(30·힐라코리아)과 장정(28·기업은행) 등이 주목받고 있다.

88년생 오피 통갑인 '세라키즈' 박민비(20·SK텔레콤), 김인경(18·하나금융),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 김승희(18·힐라코리아), 안젤라 박(20·LG전자) 등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신지애 랭킹 6위

지난주보다 2계단 올라



한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미즈노클래식 우승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추가되면서 2계단 도약했다.

신지애는 지난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이후 세계6위로 올랐지만 이후 랭킹 포인트 배점이 적은 국내 대회에 주력하느라 9위로 하락했다가 우승 한번으로 단숨에 6위로 복귀했다.



'올림픽 펜싱' 남현희 반갑다

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 여자부 개인전 예선 경기에서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서울시청·왼쪽)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습뉴스

프로배구 백어택 2점제 폐지

신생팀 우리캐피탈 서울 연고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 백어택(후위공격) 2점 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생구단인 우리캐피탈은 서울을 연고지로 공식 확정했다.

로 의결했으며 비디오 판독은 지난해와 같이 한 차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독 과정에서 부상은 빠지고 판독위원만이 참여하기로 했다.



13일(목) ▲아시아 시리즈 2008(대한 통이 : 중국 청진)(12:00-MBC ESPN) ▲2008 NH농협 제51회 KOGA 선수권 대회 1R(13:00-SBS골프) ▲2008 프로야구 아시아시리즈(한국 : 일본)(18:00-KBS2) 14일(금) ▲2008 LPGA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1R(05:30-SBS골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ng Bong-gu' (성봉규)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 Dang Real Estate' (금당부동산)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JLB Welbeing Public Housing' (웰빙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u Gongin Public Housing' (다우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